

신체 훼손을 통해 세상과 더 연결되기

언니의 바깥을 바라보는 방식은 “안과 밖을 경계 짓는 것이 아닌, 마치 자신의 피부를 걷어내고, 뒤집고, 반전시켜 놓고 자세히 들여다 보는 일”이라고 했지. 나는 이 문장이 흥미롭게 다가왔어.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고 지금도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무얼까 생각해. 몸의 끝이면서 눈과 가장 먼 곳에 있는 발가락과 어느 날 뚝 떨어져버려 몸 속을 데굴데굴 구르는 장기는 몸의 바깥과 안으로 여기게 되지만 언니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둘은 연결되어 있잖아. 크고 작은 혈관이 떠오르네. 주먹보다 크거나 작은 장기에 침투되고 근육과 뼈와 지방을 감싸고 피부 바로 아래로 지나는 온몸에 분포된 빨갛고 파란 혈관이 떠올라.

피부에 바늘을 대고 천천히 찔러보자. 몸에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생겼고 혈액은 그 사이로 새어 나오겠지. 이제 신체는 열려있어. 내부라고, 내부에 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외부로 찢고 나오게 되면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무너져. 이제 무엇이 내부이고 외부일까? 나는 이따금씩 대학생이었을 때 좋아했던 교수님의 말을 떠올려. ‘사람의 몸은 열려 있는 게 아니니? 입부터 항문까지 쪽 이어져 있잖니’. 하나의 구멍으로 시작해 이어진 여러 길을 거쳐 또 다른 하나의 구멍으로 끝나는 사람의 몸은 열려있는 존재다…. 그 말이 황당하고 웃겼지만 한편으론 나의 한켠을 찔렀어. 특히 언니의 작업을 탐구하다보니 그 교수님의 말이 자꾸 떠올라. 우리의 몸은 닫혀있지 않다. 울컥하게 만드는 말로 들리는데 사실 나는 우리가 모두에게 닫혀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우리가 열려있는 존재라면 우리와 우리 사이에 경계는 없는 것인데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개별의 존재로, 종종 부딪히면서 크고 작은 파장과 파열음을 내면 좋겠어. 언제나 부딪히지는 않을거야. 시간이 지나면 부딪힘은 서서히 잦아 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딪힘은 결국 이야기가 될거야. “외부의 무언가와 부딪히면서, 혹은 부딪히기도 전에 체내에 발생하는 저항은 모두 우리 몸 안에 표시된다” 라는 언니의 말은 내가 방금 한 말과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비가시적 충돌의 모양들”은 각기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세

상에 보여지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소설과 책으로, 언니는 조각과 애니메이션으로. 혹은 기타 등등.

얼마 전 언니의 작업실에 찾아갔을 때, 언니는 나의 질문과 대답에 질문과 대답 하면서 사람 얼굴보다 조금 큰 크기를 가진 발가락 조각의 발톱을 다듬고 있었잖아. 대화가 끝날 쯤에는 네 번째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의 발톱이 깔끔히 다듬어져서 언니는 나와 대화하는 동안 두 개의 발톱을 다 다듬었다고 말해줬어. 코 앞에 앉아 있는 나와 대화하고 있어도 언니의 정신의 일부는 발톱에 가 있는 것 같았어. 언니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발가락을 실 틈 없이 다듬음. 함께 있어도 나와 유리된 상태. 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말하기. 내가 없어도 지속되는 발가락 조각하기. 질문과 대답 대신 발가락을 떠올리기. 결국 서혜연은 서혜연을 떠올리게 되는 것. 몸으로부터 분리된 서혜연의 발가락을 보면서 나는 나를 생각한다.

벽토로 만들어진 발가락 조각은 무거워 보이고 언니가 주로 다루는 매체인 ‘조각’도 무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언니는 자꾸만 중력을 배반하려고 해. 언니의 조각은 눈으로 보았을 때 분명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분명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발가락을 똑 잘라서 떼어 놓은 채 나머지 몸이 땅으로부터 떨어진다면 우리는 땅을 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대로 땅에서 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언니가 말했듯이 언니의 작품에서는 지면과 조각이라는 몸의 파편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의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대기가 보여. 물론 조각들은 조각보다 한참 무거워 보이는 직육면체로 굳힌 시멘트 위에 올려져 있지만 이것이 그 대기이자 조각을 붓뜨게 해주는 기체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해. 그렇지만 눈으로 보기엔 언니의 조각은 지면에 딱 달라 붙어 있어. 중력을 거스르는 일은 값 비싼 기계와 기술 없이는 어쩔 수 없게도 불가능하잖아. 이런 현실이 나를 슬프게 만들기도 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바라는 바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을 떠나고 싶은 걸까? 그래서 인간임을 포기하고 문자 그 자체가 되고 싶은 걸까? 몸은 너무 많은 제약과 한계와 역사를 지니고 있어. 나는 몸의 이런 점이 맘에 들지 않음을 넘어 혐오스러워.

언제쯤 삭제될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부모의 부모로, 그리고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까. 나와 결부되고 연루된 모든 시간과 장소, 피. 그러니까 모든 역사로부터 단절되기. 그리고 다시는 기록하거나 기록되지 않을 것. 내가 흘리는 점들이 저장되지 않아서 누구도 나를 떠올리지 못하고 추억하지 않으며 뒤적거리지 않을 것을 원한다.¹

언니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느꼈어. 그럼에도 우리는 대안이 있다고. 언니의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공간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느끼는 가장자리가 무너진 곳 같아. 어느 축으로든 이동할 수 있고 막다른 곳 없는 길을 무한히 뚫 수 있어. 게다가 언니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펼쳐지잖아. 우리는 데이터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데이터는 만질 수 없는 코드나 숫자이기도 하지만 나무이자 벽돌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모니터에 비치는 하얀 직사각형을 실재하는 종지와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곳에 글자를 적어낸다고 믿고 있듯이.

또 하지만 이 믿음과 동시에 이 글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커맨드 키와 S 키를 눌러서 저장을 했어. 그러니까 찢는 것도 젖는 것도 타는 것도 아니라 날아가지 않도록 저장하는거야. 이 문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삭제될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젠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는 것도 보이네. 내가 나의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누르지 않으면 글은 작성되지 않을거야. 연필을 손에 쥐고 진짜 종이에 직접 글을 적어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 가능하기도 힘들만큼 최첨단의 기계는 계속해서 발명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몸을 이용해 기계를 사용해야하는걸까? 이젠 지금 여기와 신체성과 시간을 생각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몸이 있기에 가능케 하는 것들이 있음 또한.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나의 몸을 이대로 두지 못해. 이걸 훼손하고 싶은

¹ 박윤희, 《모든 것이 틀리도록》, 2023.

충동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몸은 회복되고 악화되고를 반복해. 언니도 이런 몸과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겠지? 조각으로 몸의 파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상의 신체 해부를 하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해. 감히 추측해보건대 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만 같아. 그래서 계속해서 조각을 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어떠한 몸이, 몸에서도 어떤 부분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맹이이고 껍데기인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영원히 알 수 없는 채로 무언갈 계속 만들어 나갈 것만 같아.